

1. 기조: '학생사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무슨 뜻?

학생사회를 2만 연세인을 포함하는 '대학사회'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사회'로 보는 문제. 그러나 이것을 기조로 보기에 지나치게 뭉뚱그려진 문제제기. 따라서 이것은 여성운동에서 '가부장제 타파'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당연한 '전제'일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제기. '자치'라는 말도 마찬가지. 이념태로서의 모든 학생회는 학생 자치조직이다. 다만 현실태로서의 학생회가 그러한 모습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으나 '여성주의적' 자치라는 말이 어떠한 것인지는 지나치게 애매모호.

2. 총여학생회를 함에 있어 학생회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이제까지 학생회/질서에 관하여 공,사의 이분법이라는 논리로 비판해 왔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도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학생회라는 조직이며 그것을 올해도 하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학생회'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물론 학내에서 여학생에 관한 복지 공약은 그것 자체로 정치적인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상 올해 10대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놓쳤고 복지에 관한 마인드는 별로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5천의 여학우 공동체라고 하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몇몇 이들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여성운동'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그러한 복지 문제가 학교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역시 총여학생회 해체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의 문제제기를 하는데 있어 총여학생회는 '학생회'라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3. 새로운 질서의 구체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여성들끼리의 관계맺음의 새로운 양상을 통하여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판단하여 볼 때 그것이 '질서'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로까지 나아갔는가는 의문이다. 즉 그러한 새로운 관계맺음을 통해 우리는 연세 여학우들에게 조금이라도 페미니즘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는지. 올해 새로운 질서를 구체화시키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여기서 총여학생회-자치단체간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온다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즉 표를 찍는 5천의 여학우들과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구체화시키고 그들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